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3. 10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(도시경제과)	담당자	·과장 이익진, 사무관 박원호 ·☎ (044) 201-4842, 4844
	과기정통부 (빅데이터진흥과)	담당자	·과장 양기성, 서기관 김수정 ·☎ (044) 202-6290, 6295
	질병관리본부 (위기소통담당관)	담당자	·과장 박영준 ·☎ (043) 719-7280
보 도 일 시		2020년 3월 1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11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 · 과기정통부 · 질병관리본부 맞손,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에 나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,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·과기정통부에서 R&D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.16일 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한 면접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위치·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,
 - 대구·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신속·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대구·시흥시에서 연구 개발 중인 「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」를 활용한 「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」을 개발 했다.

- 본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으로 판명된 환자에 한정해서 이동경로 등을 지도위에서 확인하고 관련 통계정보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3월초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3.16(월)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,
 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, 감염병 위기대응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- 「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」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은 「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&D(‘18~‘22년)」로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,
- 교통·에너지·환경·안전 등 도시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·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된다.
 - 지난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금년 부터는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,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·과기정통부·질병관리본부는 동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적용하고, 향후에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부처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,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지원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-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“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데이터에 기반한 신기술·산업창출을 통한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매진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원호사무관(☎ 044-201-48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